

‘공직선거법 2심 판결’, 정국 최대 분수령 전망

與, 아쉬움 속 ‘기대감’...쇄신·민생 행보
野, 채상병 국조·검사 탄핵소추안 등 압박
김여사 특검법, 내달 10일 국회 재표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간격으로 징역형(공직선거법)과 무죄(위증교사)를 넘나들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향후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만만치 않음에도 강경 투쟁을 노선을 포기하기가 어렵고 국민의힘에선 어떻게 하든 이 대표를 ‘잡아넣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 분석했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풀뚝 뭉쳐 대어 강경 투쟁을 떠나갈 것이고,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를 더 코너로 몰고 싶었는데 조금 주춤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내

년 초 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폭탄급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의 위증교사 관련 1심 판결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일단 아쉽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여전히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고 대선 출마 자격을 잃는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부송금 사건 등에 대한 재판도 현재 진행형이다.
한동훈 대표는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



발언하는 여야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민주당에선 위증교사 1심 결과에 대해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반응이 잇달아 나왔다.
공직선거법 1심 유죄로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는 일단 ‘2연타’의 고비는 피하면서 여권과 검찰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2



9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상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도 관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뤘다. /김진수기자

“대통령 4년 중임·양원제 도입 개헌하자”

●KLJC, 정대철 헌정회장 공동인터뷰

상원이 저출생·고령화 대응, 외교·국방 등 담당
‘원포인트 개헌안’ 내달 국회·정부에 건의 방침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고 국회는 양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고 제안했다.
정 회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KLJC 집행부와 공동인터뷰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27일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서 확정된 뒤 다음 달 국회와 정부

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조정하는 내각 불신임제와 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국회 상원제도 없다”며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 5년,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오히려 정쟁을 방치 내치 보장해 주는 헌법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정회 개헌안은 기본적으로 분권적 국가를 지향할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방에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 중심제와 분권형 국회 양원제 및 지방분권·균형발전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국가 책무 부여가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회장은 ‘양원제’와 관련 ▲하원(민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하되 예산·경제·국내 정책 최종 결정권을 갖도록 하고 ▲상원(참의원)은 80인 이하(시·도별 균등 원칙)로 하되 외교·국방·안보·지방 및 균형발전 정책 최종 결정권, 정부 고위공무원 임용 동의권 등을 부여하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지역 대표형 상원인 ‘참의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 및 저출생·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규정 제정 범위를 상향·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제22대 국회가 출범하고 대통령 임기 후반인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헌 대통령 임기 전 헌법 개정 및 개정 헌법에 따른 정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12월 헌법 개정안을 건의하면 국회와 정부는 내년 중 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6년 중 국민투표를 포함한 개헌 절차 및 후속 법령 제·개정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개헌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상원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정대철 헌정회장이 국회 헌정회관에서 KLJC(한국지역신문언론인클럽)와 공동인터뷰를 갖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했다. <KLJC 제공>

“지방재정 발전 도움 주도록 재도약” 강성조 지방세연구위원장 취임 2주년

강성조(사진) 한 국지방세연구원장은 28일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를 통해 지방세·지방재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원으로 재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강 원장 취임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감소·지역소멸 대응, 교육재정·지방재정 연계성 강화 등 국정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부합하는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지방세·재정 정책여건 변화 대응 및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를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는 지자체 의견 조화를 통해 선정된 4개 분야에 관한 연구 컨설팅(세수 추계·조세 감면·지방재정 분석·지방보조금)을 새롭게 추진·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수기자

대통령실·경찰 특활비 무더기 심사 보류

예산안조정소위, 감액 마무리...증액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정적인 대통령실·경찰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심

사했으나 여야 입장 차로 결론내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실·경찰 국가안보실 82억5천100만원,

경찰청 31억6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이날 종일 진행된 예결소위 심사에서도 정부의 원안 복원 요청에 야당은 삭감 입장을 유지하며 맞섰다. 이에 박정 예결위원장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를 전부 보류했다.

또한 이날 심사에서 경찰청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26억5천만원·야당 전액 감액 요구), 정부 예비비(4조 8천억원·야당 2조8천억원 감액 요구) 등의 예산들도 무더기로 보류됐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17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28

일까지 남은 기간에는 증액 심사에 돌입한다.
증액 심사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조원을 신규 반영해 의결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올해 일몰을 앞둔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이 쟁점이다. /김진수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배송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래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권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형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